

공산당문화의 해체 (련재-1)

5 천년의 중화문명은 한세대 또 한세대의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 또 하나의 조대가 결속되지만 하늘을 존경하고 신을 믿으며 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전통적인 문화는 잃지 않았다. 중공은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것을 세운다.》고 떠들면서 5 천년의 전통적인 중국문화를 말살하고 중공의 당문화를 건립했다. 아래에 당문화가 생활 속에 침투된 몇가지사례를 들고자 한다.

1. 중국의 황력을 음력 혹은 농력으로 고쳤고 신년을 춘절로 고쳤다.

중국의 전통적인 력법은 황력으로서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닌 음양합력이다. 황력은 간지 기년으로서 24 절기표와 오늘의 길, 흥, 이, 기가 혼인결혼, 의식경전, 건축이사, 생활거주, 제사안장 등 내용과 관련되었고 또한 천지신명을 존중하고 천시, 지리, 인화의 가치관을 반영했다. 중공은 정권을 잡은후 《황력》에 예측, 풍수등 관련내용이 있다면서 《황력》을 폐지했다. 중공은 《음력》도 도가에서 말한 수련내포가 있다고 하면서 1968 년에 《음력》을 《농력》으로 고쳤다.

신년은 중국사람들이 최대의 전통명절이다. 고대사람들은 풍작을 이루면 천지신명에게 감사를 드리고 래년에도 세월이 좋기를 기도했다. 전통적인 신년은 정월 8 일부터 15 일까지인데 정월 8 일은 석가모니가 깨달아 부처가 된 날이다. 중공은 석가모니부처를 부정하고 1949 년 9 월

27 일에 정월초하루를 《춘절》로 고쳤다. 이때로부터 《춘절》은 봄날의 명절로 변해버렸다. 해마다 신년이 오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당을 믿으며 《모주석의 만수무강을 축원했다.》 20 여년동안 《춘절문예만회》는 줄곧 모주석과 공산당을 노래했다.

2. 전통적인 명절을 취소하고 당명절을 배치했다.

중국의 전통명절은 모두 수련, 신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전통적인 명절은 신년외에 원소절, 청명절, 단오절, 우란분회, 추석, 중앙절, 동지, 육불절, 칠석등이 있다. 중공은 신년을 춘절로 고쳐 쇠는 것외에 기타 전통명절은 쇠지도 않고 법정휴가일도 없다. 중공이 제정한 당명절은 《3.8 부녀절》, 《5.1 로동절》, 《5.4 청년 절》, 《6.1 아동절》, 《7.1 건당절》, 《8.1 건군절》, 《10.1 국경절》 등이 포괄된다. 이 당명절은 모두 계급투쟁과 혁명기념과 관련된다. 당명절때 《노래시합》, 《문예연출》을 조직하여 공산당의 공덕을 노래한다. 《3.8 절》, 《5.1 절》, 《6.1 절》에 국제란 두글자를 덧붙혔지만 몇몇 공산국가 외에 세계 기타 국가에서는 이런 명절이 없다. 중공이 이런 명절을 제정한 것은 《로동자, 부녀, 아동》 들은 기시를 받는 계층이라고 선동하면서 그들이 당의 말을 듣게 하고 공산투쟁에 앞장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파룬따파일》을 경축



5 월 13 일은 《세계파룬따파일》이다. 매년 이날이 오면 전세계 《진, 선, 인》을 열애라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고 인류에게 더없는 복음을 가져다준 파룬따파를 경축하고 찬송하고 있다.

존경하는 파룬공사부님께서는 우주의 끝없이 아득한데서 조용히 내려오셔서 우주의 시공에 홍대한 자비를 베풀었고 《진, 선, 인》의 감로수는 메마른 생명을 적셔주었으며 귀향하는 밝은 등불은 잃어버린 방향을 비쳐주었고 참된삶의 의의는 죽어가는 생명을 반존귀진하게 하였다.

《설산백련》을 칭송

법륜공수련인들로구성된 신운예술단의 세계 순회공연은 성황리에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각국관중들에게 선사한 감동은 영원히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이감동은 배우들의 정채로운 기교와 중화신전문화의 내포에서 올 뿐만아니라 8 년동안 잔혹한 박해를 겪으면서도 수련생들의 전세계에 전파한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 바르고 평화로운 예술의 한마당이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방출하고 있는 진리의 빛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매한 생명의 심령을 깨우쳐 주었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세계로 반본귀진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불법판결 받은 대법제자 리문지



왕청현대법제자 리문지(39 세)는 왕청현청교령림업국대안림장 노동자였다. 2003년 6월, 리문지는왕청현청교령림업국 안국 약경들에게 불법랍치되어 억울하게 2년로동교양을 받았다.

2007년 4월 18일 오전 10시경에 왕청현 동광진파출소 약경 4명이 리문지집에 뛰어들어 강제로 리문지를 랍치해갔고 컴퓨터, 대법책, 진상 CD 등을 빼앗아갔다. 리문지는 왕청현간수소에 갇혀 20일동안 혹형과 심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대법에 대한 “진선인”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약경들에게 법륜공진상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박해를 제지하기 위해 단식하였다. 그는 체중이 160근이었는데 지금은 여위여 뼈만 앙상했고 얼굴색은 누렇게 되고 걸음마저 비틀거렸으며 말할 힘마저 없었다. 연길시법정에서는 최근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집에 파룬궁자료가 있고 아들에게 파룬궁을 배워주었다는 구실로 죄없는 리문지를 로동교양 1년반 판결을 내렸다. 리문지의 아들 리소진(10세)은 의지할 곳이 없어 잠시 동광진파출소에 머물러 있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4월 30일, 연길시파룬궁수련생 주희옥은 진달래광장에서 련공하다가 약경들에게 랍치되어 연길지구류소에 갇혀 모진 박해를 받고 5월 12일 집으로 돌아왔다.
-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경에 연변안도현 이도백하 파룬궁수련생 주야진, 주야선, 주야평, 리락우는 약경들에게 랍치되었고 주야평집은 수색당하여 필기책, 핸드폰, 복사기, 위성접수기 등을 빼앗겼다.
- 2005년 파룬궁진상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약경들에게 랍치된 룡정시대법제자 김태준은 룡정시간수소로 압송되었다. 간수소에서 늘 주변인들에게 대법진상을 이야기했고 이 정황을 알게 된 간수소 약경은 화가 나 “김태준을 다른데로 보내지 않으면 간수소가 파룬궁으로 변하겠다.”고 소리질렀다. 그리하여 약경들은 그를 공주령 감옥으로 압송하여 작은 독방에 가두고 감시와 박해를 감행하였으며 가족면회도 거절했다.

왕청현동광진파출소악인방

배영남	소장	13843346669
리작록	지도원	13844968388
박명근	경찰	13844777968

특의공능에 대한 간단한 소개

1. 특의공능이란?

특의공능은 생명의 본능이다. 수련하여 심성의 층차가 높아야 본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만 심성이 낮으면 본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람사는 이 인간의 공간에서는 모든 본능이 감춰져 작용을 발휘할 수 없다. 다만 진정한 수련을 하여 그 본능이 되살아 나오게 되는 것이다.

2. 특의공능의 종류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특의공능은 천목,요시(遙視),투시(透視),숙명통(宿命通),신령전감(心灵传感),운반(搬运),날기(起飛) 등이 있다.

3.천목이란?

천목이란 다른 공간을 볼수 있는 눈을 말한다. 생물학자들이 사람의 대뇌속에 세번째 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류의 태아발육이 두달 될때 이 《세번째눈》은 나타났다가 점차 사라져서 나중엔 공알만한 송과체(松果体)로 된다. 이 송과체 속엔 완전한 눈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빛,색갈을 식별할수 있다. 수련계에서는 이 송과체를 천목이라고 부른다. 천목을 열려면 끊임없이 마음을 닦고 수련하여 층차를 높여야 한다.

특의공능 탐츨

1. 트럼프와 마작을 투시

호북 《초천도시보》에 한천에서 사는 여탁천(7세)은 두눈으로 트럼프와 마작을 꿰뚫어 보았다는 소식이 실렸다. 의학전문가와 인체과학연구원 및 마술사가 련합하여 이 어린이의 공능을 검증한 결과 마술로 얼림수를 쓴것이 아니라 확실히 투시공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 눈감고 글읽기

2006년 6월의 말레이시아 《광명일보》에는 오누이인 구길룡(10세)과 구폐정(8세)은 11시간의 《기억가속훈련》을 거쳐 눈을 감고 글을 읽을수 있다는 소식이 실렸다. 훈련책임자 림자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눈을 싸매고 물건을 볼수 있는 공능은 사람이 나서부터 소유한 잠재능력이다. 오직 특수한 훈련을 거쳐야만 이러한 잠재능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3. 손가락으로 글자 알아맞추기

대만 대학교 교장 리사잠은 1966년에 대만 과학전기전공부에서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손가락으로 글자 알아맞추기 훈련을 했다.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알아맞출수가 있었다. 리사잠은 말하기를 《손가락으로 글자를 알아맞추는 능력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능력이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초감과 지각이 점차 소실 된다.》고 하였다.